

인류가 무궁화 되는 지상선국 시대

겨레의 꽃 무궁화는 7월에서 10월 사이에 피는 꽃이다. 또한 무궁화 꽃이 절정을 이루는 때는 8월이다. 한민족과 수천 년을 함께해온 꽃이 무궁화다. 부산제단 책임승사로 재직 중인 김원찬 씨는 공직 시절 무궁화를 국화로 제정하는 등 무궁화 홍보에 관련된 여러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정부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현행 제도로서도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2007년부터 대한민국의 나라꽃인 무궁화를 기념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주도로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기리게 되었는데, 옆으로 누운 8자가 무한대(∞)의 무궁(無窮)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8월 8일로 지정했다.

무궁화는 성경에도 나오는 꽃

성경에는 무궁화를 사론의 장미(Rose of Sharon)라고 적고 있다. 물론 영어사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표기한다. "주님은 사론의 장미요 산곡에 백합화이다(아가서 2:1)"에서 사론의 장미는 무궁화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무궁화는 주님을 상징하는 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구세주 조희성 선생의 오른 손바닥에는 무궁화 꽃이 손금과 어울려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른 손바닥 태양구에 꽃봉우리가 돋보이게 있고, 생명선과 운명선 등의 손금이 무궁화 꽃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손금이다. 조희성 구세주께서 무궁화가 절정을 이루는 때인 8월 12일 태어나신 것을 보면 성탄절과 무궁화는 때려야

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무궁화는 영생과 구세주를 상징한다

무궁화는 글자 그대로 영생을 상징하는 꽃이다. 무궁화(無窮花)라는 글자에 그 뜻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라는 노랫말처럼 무궁화는 글자 그대로 영원무궁토록 피어나는 꽃이다. 꽃나무에서 하나의 꽃이 피었다 시들면 그 옆의 꽃이 다시 피어나고 이렇게 반복해서 피어나는 꽃이다. 이처럼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은근과 끈기를 잘 나타내준다. 무궁화 노래에는 인류 전체가 구세주가 되고 영생하는 무궁화가 되어 지상선국 시대를 열자는 염원이 담겨 있다.

무궁화는 구세주를 상징하는 꽃이다. 사론의 장미가 무궁화요 주님이라고 성경 아가서에서 말한 것도 그러하거나 또 한 역학의 수리직(數理的)으로 보아도 그렇다. 무궁화는 5수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꽃잎이 다섯이고, 꽃받침이 다섯이며, 꽃술도 다섯이다. 5수는 구세주를 나타낸다. 보통 꽃과 다르게 5수를 갖춘 무궁화, 이는 구세주를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무궁화의 전래 경로는 우리 한민족의 이동경로와 일치한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내용은 무궁화가 우리 민족이 구라파에서 이동해 왔음을 알려 주는 꽃이라는 점이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소라 땅에서 출발하여 이라크 이란을 거쳐 중국 대륙을 지

나 알타이 산맥에서 100내지 200여 년간 우거(寓居)하다가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들어온 성경 상의 단지와 민족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무궁화의 학명이 Hibiscus Syriacus인데 이는 시리아(Syria) 나라가 무궁화의 원산지임을 알려주는 이름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무궁화 씨앗과 묘목을 계속 가지고 한국 땅으로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역사책에 기록된 무궁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무궁화가 많이 심어져 있었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구당서 신라전(新羅傳)에는 신라를 '근화향'(槿花鄉, '무궁화의 나라'라는 뜻)으로 소개하였으며 산해경(山海經)에서는 '君子之國 有薰華草 朝生暮死'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에 꽃이 지는 훈화'로 소개하였다. 중국의 고전(古典) 고금기(古今記)에 '君子之國 地方千里 多木槿花'라고 하여 '군자의 나라 우리나라는 지방이 천리이며 무궁화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많이 피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원산지가 되는 시리아 나라를 거쳐 동방으로 이주할 때 씨앗이나 묘목을 가져와서 심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들은 애국가를 부를 때도 무궁



一樹無窮佳 開和萬耶春 (일수무궁가 개화만야춘)
한 그루의 나무가 무궁무진한 영생 진리를 펼쳐는 훌륭한 인물이요 만백성과 만우가 무궁화로 개화하니 영원한 봄날의 신세계로다
國祖崇奉總和國民會(국조숭봉총화국민회) 常任顧問(상임고문) 曹熙星(조희성)

화리는 단어를 접한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이처럼 우리에게 친밀한 무궁화가 구세주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승리제단 신도들은 무궁화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마음에 새겨 구세주의 상징임을 생활 속에 뿌리가 내리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우리 모두 무궁화가 되는 그날까지.*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89>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자기 직분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대로 관공뉴스사면 관공뉴스사, 신문사면 신문사, 방송실이면 방송실, 또한 편집부면 편집부, 특전대면 특전대, 관현악단이면 관현악단으로서 자기 직분을 다해야 한다.

말하자면 관공뉴스면 관공뉴스로서 자기가 해야 될 직분이 있는 것이다. 좋은 기사를 써서 이 관공뉴스 책이 베스

트셀러가 되어서 불타나게 팔리고 사방에서 찾는 책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각자의 직분대로 충실히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적어도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 아니한, 마귀의 영을 늘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은 훨씬 뛰어난 것이다.*

이기는 삶

거짓말을 식별하는 방법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나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속 시원하게 결말을 내는 게 좋다. 상대방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사업을 하든 연애를 하든 꼭 거짓말쟁이가 있다. 그러므로 빨리 거짓말을 눈치채는 게 중요하다. 다음은 '상대방의 거짓말을 식별하는 10가지 방법'이다.

1. 바디 랭귀지를 관찰하라. 말하는 사람의 신체적 징후를 잘 살펴봐라. 말을 하면서 땀을 흘리거나 손으로 뺨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2. 상세하게 물어봐라. 거짓말은 급하게 꾸며낸 이야기므로 상세한 내용이 없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의 특정 부분을 물고 늘어져라. 앞에서 들은 자잘한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물어봐라. 그러면 엉뚱한 대답이 나올지도 모른다. 사실이라면 주저 없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즉흥적으로 한 거짓말이라면 우물쭈물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며 대중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3. 불쾌감과 짜증에 주목하라. 거짓말쟁이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 비해 눈에 띄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를 내기도 한다.
4.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라. 거짓말쟁이는 상대방의 시선을 무의식적으로 피한다. 눈빛이 흔들리기도 한다.
5. 스트레스의 징후에 주목하라. 목 소리가 떨리거나 동공이 커지는지

잘 살펴봐라. 사실을 말하는 사람에 비해 거짓말쟁이에게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6. 말을 하다가 망설일 때를 주목하라. 현장에서 인기응변으로 이야기를 꾸며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 한 박자 쉬어가기 위해 우물쭈물하기 쉽다.
7. 다시 물어봐라. 경찰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해보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와 나중에 한 얘기가 서로 불일치하는지를 가려낸다. 하지만 조심하라.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서 거짓말을 할 때도 앞에서 했던 얘기를 한 마디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기 때문이다.
8. 극구 자기 얘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대화 도중에 '솔직하게 말하지만' '정직하게 말하지만' 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해서 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해 봐야 한다.
9. 자신을 알라. 거짓말쟁이들이 사기에 성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듣는 사람이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할 필요가 있다.
10. 직관력을 동원하라. 직관력이 뛰어난 심리학자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거짓말을 좀처럼 식별해 내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 생각과 느낌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구뫼물 마을에서 앞으로 세계를 구원할 큰 인물이 날 것이다"



김포(金浦)에서 진인(眞人)이 출생한다는 뜻이다. 이밖에 생미륵불은 신미생으로 오신다는 것과 명성(明星)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 목시록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이긴자에게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조희성님은 밝은 희(熙)자 별 성(星)자의 이름을 가졌다.

그리고 격암유록 승운론(勝運論)에서는 정도령은 하늘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천생자(天生子)에게 무부지자(無父之子)라고 했다. 무부지자(無父之子)란 예비 부(父)자, 없을 무(無)자, 갈 지(之)자, 아들 자(子)로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뜻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 성모님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천생자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이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우물 정(井)자가 가운데 있는 이름의 부락에서 세계 만인을 구제하는 주인공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조희성님이 가슴에 북두칠성의 점이 새겨진 채 태어난 곳이 김포에 있는 감정리(坎井里)이다.

신미년 1981년 양력 8월 12일 무궁화가 만발하는 시기에 조희성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만백성을 무궁화와 같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구세주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다. 성모님은 조희성님을 잉태하셨을 때 신이

한 꿈을 꾸셨다. 꿈에 계양산에 올랐는데 갑자기 오색찬란한 빛과 구름이 온 산을 뒤덮더니 흰옷을 입은 신녀들 300여 명이 하늘에서 날아서 내려왔다고 한다. 그 신녀들이 성모님 주위를 에워싼 후 방방 돌더니 일제히 성모님을 향해 큰절을 하기에 성모님께서 "어떤 연고로 그러시느냐?"고 물으니 한 신녀가 "당신의 태중에 계신 분은 인류 중에서 가장 크신 분이네.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하여 일할 위대한 신인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중에 계신 그분을 향해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잘 보존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진왜란 때 의병의 선봉장으로 금산 전투에서 왜군과 싸우다 7백 명의 의병과 함께 장렬히 순국(殉國)하신 중봉 조헌 선생은 1544년 6월 28일(중종 39년) 김포 감정리에서 출생한 분이다. 조헌 선생은 자신의 출생지와 관련하여 예언하기를 "이 구뫼물 마을에서 앞으로 세계를 구원할 큰 인물이 날 것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구뫼물은 김포 감정리에 속한 내용, 외옹, 구뫼물, 나진교, 독작골이라고 불리는 5개 부락 중 하나이다. 조희성님의 친조부는 음력 6월 28일에 태어난 그의 손자가 조헌 선생이 예언한 큰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손자를 애지중지하셨다고 한다.*

경축 제 94회
생태환경
2024년 8월 12일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정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